

밥상물가 천정부지 닫힌 지갑... '가성비' 먹거리엔 무장해제

스미후루코리아 편의점과 손잡고 가성비·반값 등 바나나제품 선봬

노브랜드버거 '허브순살치킨런' 미디엄 9900원, 라지 1만8900원 CU 1000원짜리 삼각김밥 출시



CU가 선보인 초저가 간편식 '놀라운 간편식' 시리즈 /BGF리테일



허브순살치킨런 /신세계푸드

계속된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가성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2년 12월 대비 3.2% 상승했으며, 외식물가지수는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부문에서 치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5.4% 올랐으며, 신선과실의 경우 25.7%가 상승해 밥상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좋은 품질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앞장선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청과 기업 스미후루코리아는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를 통해 '갯성비바나나', '반값바

나나', '2+3 이래도 안바나나?' 등 가성비 바나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 부담 없이 바나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대부분이 2개입인 것과 달리, 스미후루코리아의 편의점 바나나는 비슷한 가격대에 5개 구성으로 판매되고 있다. 맛과 영양 성분은 기존 바나나와 동일하지만, 외관 형태가 고르지 못한 바나나를 선별해 소비자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미후루코리아는 작년 11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에 따라 한 차례 바나나 공급 가격을 인하했으며, 올해 1월 재시행된 할당관세로 인해 다시 한번 가격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CU를 통해 공급하는 '반값바나나'의 경우, 2월 1일부터 한정 기간 동안 기존 판매가 23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15%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마트24의 '2+3 이래도 안바나나?', 세븐일레븐의 '갯성비바나나'도 2월 중순부터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브랜드 치킨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는 합리적인 가격의 '허브순살치킨런'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100% 순살 닭다리살에 허브 시즈닝을 더한 튀김 옷을 입힌 것이 특징이며, 신세계푸드가 독자 개발한 스위트마라소스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허브순살치킨런 미디엄 사이즈는 9900원에 맞출 수 있으며, 2~3인이 즐길 수 있는 라지 사이즈는 1만8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허브순살치킨런에 감자튀김, 탄산음료 등을 포함해 1만2900원에 맞춰 구성한 '치킨 싱글팩'과 허브순살치킨런, 크런치윙, 크리spi 너겟 등을 1만4400원으로 구성된 '치킨 페스티벌팩'도 선보인다.

편의점에는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 재등장했다. CU가 단돈 1000원 삼각김밥 등 업계 내 초저가 차별화 간편식 라인인 '놀라운 간편식' 상품을 이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 것.

'놀라운 간편식'은 편의점에서 가성비 높은 한 끼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를 겨냥해 출시된 CU의 초저가 간편식 브랜드다. 신제품 중 하나인 '매콤어묵 삼각김밥'은 CU가 5년 만에 내놓는 1000원 삼각김밥이다. 이밖에도 초저가 닭밥(3900원)과 샐러드(2900원)를 추가로 출시한다. /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닷컴

日 3회 왕복권 20만원대 내일 즉라이브 단독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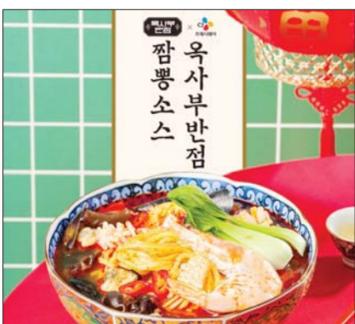
SSG닷컴은 2월 2일 오후 8시부터 자체 라이브커머스 '즉라이브'를 통해 '에어서울 국제선 민트패스' 4종을 단독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본 3회 왕복권'을 20만원대에, '일본 횡수 무제한 왕복권' 및 '동남아 3회 왕복권'을 30만원대에, '동남아 횡수 무제한 왕복권'을 40만원대에 200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라이브방송 시작 후 선착순 600명에게는 1만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민트패스'는 에어서울이 만든 주중 정기 항공편으로 항공편을 구매 횡수 별로 무료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다. 국제선 탑승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월~목요일에 출발하는 주중 항공편만 해당되며 어린이날, 현충일 등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짜에 사용할 수 있다. 민트패스 이용 고객은 탑승 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만 별도 지불하면 된다. / 최빛나 기자

CJ프레시웨이, '3조 소스' 시장 B2B유통 확대 박차

소스 유통매출 전년 대비 31% 성장 외식 사업장 31%, 단체급식 42% ↑ 신제품 출시 등 PB라인업 강화 주력



옥사부반점 짬뽕소스. /CJ프레시웨이

최근 로제, 마라 등 이색 소스의 인기로 힘입어 다양한 소스 상품이 각광 받고 있다. 복잡한 레시피를 없이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맛을 낼 수 있어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외식 및 급식 사업장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B2B 고객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소스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CJ프레시웨이의 소스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관련 매출은 외식 사업장과 단체 급식 경로

에서 각각 31%, 42%씩 늘었다. 연간 판매량은 2만6000t으로 하루 평균 71t씩 팔렸다. 메뉴형 완제 소스,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중식 소스(마라 소스, 굴 소스)의 판매 성과가 돋보였다. 메뉴형 완제 소스는 단체급식 경로

에서의 수요가 도드라졌다. 떡볶이 소스, 마라탕 소스 등 메뉴별 상품으로 출시되어 여러 재료를 배합하는 수고를 덜고 간편하게 메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비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돕고 배식량에 관계없이 음식의 맛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급식장의 '만능 아이템'으로 통한다.

일부 상품은 급식 메뉴의 인기를 견인하기도 했다. CJ프레시웨이가 급식장에 유통하는 대용량 밀키트(약 30인분) 중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로제 치즈 속 옹북이 ▲비질 크림 추북이 ▲마라 크림 파스타 키트는 급식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 구성품이 재주물들을 높이는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신원선 기자

외식 경로에서는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성장세가 돋보였다. 전년 대비 매출이 48% 늘었다. 치킨용 양념 소스, 피자용 토마토 소스, 햄버거 소스 등 외식 인기 메뉴에 부합하는 상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는 각 외식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메뉴 고유의 맛을 내는 용도로 개발되어 업체별 전용 상품으로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의 유명 식품 브랜드와 협력해 독점 상품 유통 규모도 확대했다. 지난해 독점 소스 상품의 유통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성장했다. 2022년 B2B 독점 유통 판매권을 확보한 '하이디라오'의 마라 소스 상품군이 대표 사례다. / 최빛나 기자

쿠팡

'설날 선물 기획전'

쿠팡이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가격대의 인기 선물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2024 설날 선물 기획전을 2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정육, 과일, 수산물, 건어물, 가공육, 반찬류, 떡, 명절음식 등 고객들이 주로 선물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모두 담아냈다. 기획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는 제스프리, 황성한우, 농협안심한우, 우미학, 목우촌 등이 있다.

쿠팡은 고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 ▲3만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 ▲3만~5만원 대의 가성비 선물 ▲5만원 이상의 품격있는 선물 등 가격대별로 상품을 한데 모아 확인할 수 있게 구분해 쇼핑의 편의를 더했다. / 최빛나 기자

이마트24, 9개 반찬 '갯진명절도시락' 선봬

잡채·전3종·고사리볶음 등 구성

편의점 이마트24가 설날을 맞아 '갯진명절도시락'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갯진명절도시락(7900원)은 명절 음식인 잡채, 돼지고기구이, 전 3종(해물완자, 오색모듬전, 감치전), 도라지볶음, 고사리볶음, 시금치무침, 볶음김치 등 9가지 반찬으로 푸짐하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 명절도시락은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맛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밥과 반찬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마트24는 차별화된 밥맛을 제공하

기 위해 '갯진명절도시락'에 신제품 '미호쌀'을 사용했다. 미호쌀은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신제품 쌀로, 냉장·냉동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적당한 수분감과 찰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명절에 갯 만든 잡채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 소포장 참기름을 동봉했다. 잡채에 참기름을 바로 섞어 참기름의 고소한 향을 느끼며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더불어 명절에 먹는 갈비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돼지고기를 두껍게 썰어 갈비양념으로 조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플러스, 데친문어 30% 등 '역대급 할인'

일주일간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

홈플러스가 설맞이 알뜰 쇼핑을 위해 역대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데친 문어(100g)는 30% 할인한 4130원에 판매하며, 차례용 큰닭(1.5kg)은 4000원 할인한 7990원, '믿고 먹는 농협 상주 햇 꽃감(12입)'은 2000원 할인한 1만1990원에 판다. 냉동 간편 전류(10여종)는 멤버 특가로 10% 할인해 7190원부터 준비했다. 고사리/



모델들이 31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도라지/취나물 삼색 나물(450g)은 모든 고객에게 9990원에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이마트

소불고기 등 식품 3종 초저가 식품으로 선정

이마트는 고객이 가장 필요한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가격파격 선언'을 2월에도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명절 소비를 감안해 초저가 식품 3종으로 소불고기·양파·냉동만두를 선정했다. 1월 가격파격 선언 '인기 먹거리'였던 삼겹살은 가격을 더 내려 '특급 게스트'로 더했다. 가공식품/일상용품 40개 중 12개는 동일 상품군의 새로운 인기 아이টে이션으로 바꿨다. 소불고기는 고객들이 소불고기를 살 때 대파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점을 착안해 대파를 곁들인 '임자도 대파 소불고기'로 기획했다. 800g 한팩 가격은 9980원으로 정상가보다 41% 저렴하다. /최빛나 기자